

공간적 차이에 기반둔 공간 다양성 확보해야 피마길 등 중간영역에서 공간정의 실현 가능

지역 고유특성으로 나타난 공간적 차이 고려않는 공간정책으로 공간부정의 발생

전 지구적 감염병사태(global pandemic)로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범위가 축소되면서 커뮤니티 단위의 활동이 늘어나고 가급적 커뮤니티 안에서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그동안 주목을 끌지 못하였던 커뮤니티 주변의 숨겨진 공간에서 장소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직·간접적인 접촉 수단을 통하여 공유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 지구적 감염병사태가 도래하기 이전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를 기반으로 한 전 세계의 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발생되었던 공간의 부정의(spatial injustice)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몇몇 공간이,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맥락, 그리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형성하는 특수한 조합을 통하여 공간적 특수성(spatial specificity)을 가지게 되면서 이곳을 대상으로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의 불균등한 집중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나라들은 전 세계에 부유하는(buoyant)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장소 마케팅(space marketing) 정책을 펼쳐나갔다. 이때 각국의 장소 마케팅의 대상은 대부분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도시는 그 주변의 배후지역을 아우르는 거점으로서 지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는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사회적 혁신과 발전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도시를 대상으로 한 장소 마케팅은 자본의 집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연출된 도시의 이미지는 여행지에서 구입한 정형화된 그림엽서에 그려진 도시와 같이 실존하는 도시가 아닌 그림으로만 존재하는 미화된 허상일 뿐이었다. 장소 마케팅에서는 도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매력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도시를 어떻게 대중에게,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도시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계층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일 뿐이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많은 낙후된 지역이 지역 고유의 장소적인 특성을 등한시한 채, 대중적 인기를 얻은 지역의 외형적 모습만을 단순히 모방하는 마케팅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몰개성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지역 고유의 공간적 특성으로 나타난 공간적 차이(spatial difference)를 자연스러운 공간현

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지역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공간적 격차(spatial disparity)로 간주한 정부의 균형발전정책도 지역 간의 공간적 다양성을 훼손하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추겼다. 지역의 공간적 차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재원의 배분보다는 모든 지역의 공간이 같은 목표와 방식으로 경쟁하도록 하는 표준화된 공간정책은 다양한 공간을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의 폭을 줄이는 동시에 평균적 수준의 동일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역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규모의 비경제(diseconomy of scale)를 발생시켰다.

노상카페·골목길 등 중간영역에는 공간적 특수성 발현하는 공간특성인자가 존재

공간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공간적 특수성이 모든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유적(本有的) 유전자의 특성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이 공간적 특수성을 발현하는 공간특성인자가 존재하는 공간에서나 공간적 차이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적 차이에 기반을 둔 차별화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공간적(socio-spatial) 관계망 속에서 형성된 공간특성인자가 존재하는 중간영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중간영역에는 가시적인 도시의 모습이나 경관에서는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성과 유연성에 의하여 야기된 불완전한 결과요소가 있다. 다시 말해서, 공간을 공유하는 다양한 사람들 간의 사회적 연결망과 이로 말미암은 여러 사건들의 인과적 흐름, 주변요소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공간의 역할과 기능, 공간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이를 암시하는 이름 등 다양한 의미적 해석요소가 존재한다. 이처럼 중간영역에서 나타나는 도시의 가시적 형상과 내포된 의미의 불일치는 도시공간에 의외성과 신선함, 변화와 애매함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도시공간과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공간을 만들어 냈다. 풍부한 도시적 맥락은 특히 영역구분이 모호(模糊性)하고 경계적(周緣性) 성격을 띠는 중간영역에서 가시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다.

마키 후미히코(槇文彦, 2019)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사이에 완충공간으로서 중간영역(空き間)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는 중간영역이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는 일종의 경계이자 매개공간으로서 도시공간의 내재적 성질(奧性)이 표출하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였다. 한편 올덴버그(Oldenburger, 2019)는 집(민간영역)도 일터(공공영역)도 아닌 제3의 장소(third places)로서 중간영역을 언급하였다. 효용성이라는 이름 아래 단일성격의 체계적으로 기획된, 공식적 활동 이외에는 다른 여타의 활동도 허용하지 않는 현대의 도시공간과는 달리 모두를 포용하는 중립지대로서 중간영역에서는 어슬렁거리거나 빈둥거리며 죽치고 앉아 있는 비공식적 공공생활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상 카페나 음식점, 동네슈퍼 앞 평상, 썬지공원 또는 소규모 공터, 텃밭, 골목길과 같은 마을의 소가로 등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영역이 서로 충돌하고 교우하는 모호한 경계로서 중간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중간영역인 피마길, 공간특성인자 도출하고 특성강화방향 제시

청진동에서 낙원동에 이르는 피마길은 서울의 대표적인 서민문화의 공간으로 이동을 위한 통로로서 공적인 공간요소와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감성이 만들어 낸 사적인 공간요소가 공존하는 대표적인 중간영역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도시관리정책이 시행됨으로써 구간별로 서로 다른 공간적 특성이 공존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도심재개발의 시행으로 청진동의 피마길에는 새로운 공간환경이 형성되었으며 낙원동 구간에서는 가로정비사업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별다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비교적 옛 피마길의 공간적 특성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마길은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 다양성에 기반한 공간정의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지역이다. 다만, 공평동 피마길의 경우, 현재 도심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청진동과 낙원동 피마길의 공간적 차이를 발견하는 공간특성인자를 도출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현장설문을 통하여 각각의 피마길에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공간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마길에 내재하여 있는 각각의 공간특성인자가 피마길의 공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공간적 특수성을 형성하는 공간특성인자로 이중환(李重煥)이 택리지(擇里志)에서 언급하였던 지리(地理, 물리적 특성인자), 생리(生利, 경제적 특성인자), 인심(人心, 사회적 특성인자), 산수(山水, 문화적 특성인자) 네 가지 항목을 그가 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해석하여 적용하였다.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공간특성인자와 피마길의 공간적 특성을 나타내는 장소정체성 사이의 인과경로별 계수를 바탕으로 비교우위의 공간특성인자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진동과 낙원동의 피마길을 대상으로 공간 다양성 확보를 위한 장소정체성 강화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청진동 피마길(중학천~제일은행)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한 통계분석 결과, 청진동 피마길에서는 문화적 공간특성인자가 청진동 피마길의 장소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비교우위에 있는 공간특성인자로 나타났다. 청진동 피마길에는 도심재개발사업으로 발굴된 피마길을 포함한 주변 골목길의 옛 흔적이 기부채납으로 마련된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이전 복원되었고 피마길의 유래 등을 담은 안내표지판이 옛 피마길이 자리하였던 필지 구획선을 따라 조성된 통로의 벽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사업 이전의 피마길을 알지 못하는 이용자도 피마길이라는 장소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몸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통로 주변의 공개공지나 쌈지공원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잠시 쉴 수 있는 휴식공간과 말을 형상화한 조각상을 통하여 피마길의 옛 의미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도심재개발사업을 계기로 조성된 물리적 환경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역사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공간특성인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진동 피마길이 이용자에게는 그저 종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업무중심지구의 일부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피마길과 인연이 깊은 역사적 인물이나 이곳을 살아왔던 소시민들의 삶의 이야기, 도심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복원된 옛 흔적 등을 활용하여 사람들과 피마길에 담겨졌던 기억을 회상하고 새로이 담겨질 감성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공간과는 차별화되는 청진동 피마길의 문화적 공간특성 인자를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 민간건물의 통로로 사적공간이 되어버린 피마길의 관리주체와 협력하여 피마길을 주제로 한 사진전이나 전시회, 예술공연 등 소규모의 단발적 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가상의 공간에서 피마길의 옛 모습을 복원하고 도보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공유함으로써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사라졌던 공간문화의 공백을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재생하고 채워나간다면 문화공간으로서 청진동 피마길의 공간특성인자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낙원동 피마길(송해길~돈화문로)

한편 낙원동 피마길에서는 사회적 공간특성인자가 낙원동 피마길의 장소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비교우위에 있는 공간특성인자로 나타났다. 낙원동 피마길의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가로의 물리적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낙원동 피마길의 이용자들은 낙원동 피마길을 서민적인 장소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피마길 곳곳에서 음료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잠시 서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상인들과 흥정하거나 상품을 구경하는 사람들 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마길과 배후의 골목길을 삶의 공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이 오늘날까지 훼손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낙원동 피마길에는 사회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공간특성인자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간특성인자를 활용하여 낙원동 피마길의 공간적 특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낙원동 피마길의 사회적 관계망을 구성하는 인적자원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역 상인과 이용자인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행사를 통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고 이를 구성원 간의 소통과 교류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지역상인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활동가의 참여도 고려할 수 있다. 낙원동 피마길의 사회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지역의 공간적 특수성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지역 구성원 사이의 화합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은 낙원동 피마길의 공간적 특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인접한 중간영역과 서로 다른 비교우위의 공간특성 공유 위한 공간연계 필요

각각의 공간의 공간적 특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교우위의 공간특성인자를 선별하고 이러한 공간특성인자의 잠재력을 강화하는 차별적인 접근방식은 공간의 본유적 특성을 보호하고 소모적인 공간경쟁을 지양함으로써 불평등한 자본의 집중으로 인한 공간의 부정의를 해소하는 동시에 시민들

에게 다양한 공간체험의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특수성은 비교우위의 공간특성인자에 한하여 발현되는 것이 아닌 여러 공간특성인자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 공간특성인자를 차별적으로 강화하는 이번 연구의 접근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특정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차별적인 경관과 문화 콘텐츠의 발생 원인을 공간특성인자라는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인자를 통하여 규명하고 공간적 차이를 공간적 격차로 인식하는 현재의 공간균형정책에 대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한편, 각각의 중간영역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차이가 다양성을 기반으로 공간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접한 중간영역과 서로 다른 비교우위의 공간적 특성을 공유하기 위한 공간연계정책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공간적 특성을 필요로 하는 중간영역과의 연결망(network) 구축을 통하여 차별화의 이점을 공간적으로 연결하고 공유하는 공간정책을 실현함으로써 비로소 공간정의의 완성할 수 있다. 다만 서로 다른 공간적 특성을 공유하고자 하는 중간영역 사이의 연결망은 각각의 중간영역을 포함하는 지역 전체의 환경부하를 저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공간연계를 통하여 또 다른 공간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